

# 광주시장 후보군 속속 등판... 民 5~6파전, 野 윤곽

## ‘20년 만의 재선 도전’ 姜 시장에 민형배·문인·이병훈·이형석 출사표 ‘제3 인물론’도... 혁신·정의·진보·국힘 등 다자구도 본선 대결도 관심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거여(巨與) 더 붙어민주당 경선을 6개월여 앞두고 광주 시장 후보군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선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공천 틀이 정해지지 않았고, 부동층도 30% 안팎으로 두터워 관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각 입지자들은 추석 밤상머리 민심과 당심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9~10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정권교체 후 민주당에 정치적 힘이 풀린 가운데 야당은 광주발(發) 돌풍을 기대하며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5~6파전이 유력시되고, 본선에선 민주당에 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이 링 위에 올라 다자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자로는 현직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나서는 강기정 시장에 맞서 행정 달인 문인 부구청장, 광주 유일 다선 민형배 의원,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이형석 전 국회의원, 40대 기수 정준호 의원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강 시장은 총선에서 6선과 ‘리틀 DJ’ 등 거물들을 연거푸 누르며 3선(17~19대) 고

지에 오른 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 등을 지냈다. 2022년 민주당 경선에서 화려한 스펙을 지닌 이용섭 당시 시장을 꺾고 공천장을 받은 뒤 본선 75% 득표율로 시정에 임성했다.

박광대 시장 이후 20년 만에 ‘재선 시장’에 도전하는 강 시장은 소비 쿠파 색상 논란 등의 악재를 딛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민생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에 걸고 나섰다. 광주다음 통합돌봄 등 국내 1호 시책들의 전국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AI 모델리터와 복합쇼핑몰 유치, 강력한 조직력은 장점으로 꼽힌다.

민 의원은 2022년 ‘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끈 데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선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토론회를 열어 소음 피해, 주민 갈등, 종전부지 활용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도심 침수 긴급토론회도 갖는 등 현안 쟁점으로 표심을 모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유지 중이다.

연론인 출신 민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근무경험이 있고,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몸소 경험했다.

재선 구청장에서 체급을 올린 문인 시장은 행정 전문가, 대안 인물론을 내세워 지지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톨 모델’이라는 문 청장은 특히 SNS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취임 당시 5700억 원이던 복구 살림을 7년 만에 1조2000억 원으로 늘렸고,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예산 1조 시대를 열어 쫓던 점, 13회 연속 예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광주 최초 자치구 지역상품권 ‘부끄머니’와 ‘복구형 주치의제’는 문인다운 행정으로 통한다.

‘정청래호(號)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이병훈 수석부위원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 발전의 절호 기회”라며 호남특위를 지렛대 삼아 현안과 민생 쟁거리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문화경제부시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지낸 그는 최근 광주에서 ‘지방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열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 GGM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의 지평을 넓힌 대표 치적으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선 이밖에 광주시의회 의장, 대통령실 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형석 전 의원과 현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40대 정준호 의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또는 행정 장관급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권 후보들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조국혁신당에선 서왕진 의원의 등판이 확실시된다. 서 의원은 영광 출신으로 석산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거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헌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특보와 서울연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기후환경 전문가로 성장했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창당 멤버로, 정책위 의장, 혁신정책연구위원,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는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문인 부구청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이형석 전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지역 정가에선 이밖에 광주시의회 의장, 대통령실 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형석 전 의원과 현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40대 정준호 의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또는 행정 장관급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권 후보들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조국혁신당에선 서왕진 의원의 등판이 확실시된다. 서 의원은 영광 출신으로 석산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거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헌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특보와 서울연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기후환경 전문가로 성장했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창당 멤버로, 정책위 의장, 혁신정책연구위원,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는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야권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왼쪽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은미 전 정의당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진보당 로고.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로 2006년 서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강 전 의원은 2010년엔 체급을 올려 광주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며 시련을 견뎌 2019년 정의당 전국위원에 오른 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대표까지 지낸 뒤 22

대 총선에 나섰으나,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진보당과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내지 추대를 놓고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



야권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왼쪽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은미 전 정의당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진보당 로고.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로 2006년 서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강 전 의원은 2010년엔 체급을 올려 광주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며 시련을 견뎌 2019년 정의당 전국위원에 오른 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대표까지 지낸 뒤 22

대 총선에 나섰으나,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진보당과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내지 추대를 놓고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 의원, 신정훈 의원, 주철현 의원, 서삼석 의원, 김화진 위원장.

## 3선 도전 현 지사 VS 민주 중진의원들... 전남지사 선거 빅매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 전남도지사 선거가 조기에 점화되는 모양새다. 풀타임 3선에 도전하는 현 지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 간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여 사·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에는 김영록 현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7년 제7회·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현지 프리미엄이 최대 강점이다.

완도 출신인 김 지사는 제2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강진·완도에서 관선 군수를 지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제18대 총선 해남·완도·진도지역구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주요 성과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복지 확대를 비롯해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혁신 주도, 미래 첨단 농업업 혁신 기술 마련, 대규모 SOC 확충 물꼬, 자생적 경쟁력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예산 13조 원대 돌파, 국고 예산 6조 원대 예산 9조 원대대로 증가한 점도 대표적 성과로 들고 있다.

24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을 시작한 4선의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14년 19대 총선에

김영록 도정 성과 앞세워 풀타임 3선 노려

이개호·신정훈·주철현·서삼석 의원 도전장

조국당 출전은 아직...국힘 김화진 위원장 출마

서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이개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이 발전 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전남도지사는 일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여·광·목포부시장·전남도청 국과장·행정부지사를 거쳤으며 농식품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 본 경험 있다. 전남을 발전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은 바 있는 신 의원도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의 나주시장을 거쳐 19·21·22대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주인 나라’를 전남에서 실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나라,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한 주철현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다. 여수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원조 친명을 자처하는 주 의원은 “강한 전남, 성장하는 전남, 변화의 전남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 질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당내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인 3선(20·21·22대)의 서삼석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지사 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 서 의원은 “현 시점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2일 이전 최고위원직을 내려야 한다. 정치 지형을 봐가며 이 기간까지 출마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위원장이 출마한다.

4년 연속 전남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로 당당히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대항마로 급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경우, 최근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탓에 도지사 도전 의사를 내비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올 봄 당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바 있다. /뉴스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역사문화축제**

2025.10.24.(금) - 10.26.일  
열선루공원 일원

열선루란?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 장소

- 제1회 보성열선루이순신축제**
  - 개막식, 전국장계대회, 이순신 주제공연, 윤태호 작가(미술, 파인) 드로잉 콘서트, 축하공연 등
-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
  - 세계차품평대회, 티아트 페스티벌, 티 캠페인 & 시음회, 보성차 판매관 등
- 제2회 다~청년페스티벌**
  - 청소년 댄스·밴드공연, 다문화행사, 청소년·청년존 운영, 보성청년 함께-있다 등
-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
  - 보성향교, 보성충의당, 방진관, 국가유산 가치확산 프로그램 체험 등
- 2025 대한민국 차나무 및 우수 분재대전**

주최/주관 보성열선루이순신역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보성군  
※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